



(보도일자: 2024. 10.20)

한국조폐공사, 품질관리 시급! 전자여권 불량률 8%, 상품권 불량률 6%

- 생산품 중 전자여권 불량률 8%로 최고
- 상품권과 수표 불량률은 3년간 연속 불량률 증가
- 최근 5년간 은행권 불량화폐 1억 1,177만장, 액면가로 3조 1,174억원
(제조불량으로 인한 5년간 손실액은 169억원)
- 고액권 5만원권은 5년간 불량품 총 5,573만장에 달해

한국조폐공사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품질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경남 진해)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요제품의 손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주요제품 손율이 전자여권 8.00% , 상품권 6.04% , 주민등록증 4.05%, 은행권 3.11%, 수표 2.62%, 주화 0.28%로 나타났다.

손품은 제조과정 과정을 거치면서 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생산품(불량품)을 말하며, 손품이 발생하면 한국은행의 입회하에 소각 처리된다. 손율(%)은 전체 생산량 중의 검사 기준 부적합한 손품(불량품)의 비율로 불량률을 의미한다. (이하 손율은 불량률로 표기)

전자여권의 경우에는 2023년에 총337만4,000권이 생산되었으며 이 중에 27만권이 불량품으로 불량률은 8.00%에 달한다.

상품권의 경우에는 불량률이 ▲2021년 4.82% ▲2022년 5.32% ▲2023년 6.04%로 3년 연속 불량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23년도에는 4억 4,147만1,000장 중에서 2,842만3,000장이 불량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표의 경우에도 불량률이 ▲2021년 1.15% ▲2022년 1.75% ▲2023년 2.62%로 3년 연속 불량률이 증가하고 있다.

주민등록증의 불량률 추이를 보면 ▲2020년 4.68% ▲2021년 4.34% ▲2022년 4.27% ▲2023년 4.05%로 4년간 불량으로 주민등록증 46만3천장이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주민등록증은 2020년부터 도입)

은행권의 경우에는 1천원권,5천원권,1만원권,5만원권을 모두 포함하여 5년간(2019~2023년) 총 1억1,177만장의 화폐가 불량으로 판정되어 유통 전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액면가로 계산하면 3조1,174억원에 달하며 은행권 제조 평균단가를 적용할 경우에 5년간 제조불량으로 인한 손실액은 169억원에 달한다.

특히 고액권인 5만원권의 불량품은 ▲2019년 393만장 ▲2020년 1,282만장 ▲2021년 1,999만장 ▲2022년 1,195만장 ▲2023년 703만장으로 최근 5년간 총 5,573만장으로 은행권 권종 중에 폐기되는 양이 가장 많았다. 5만원권 불량으로 인한 손실액은 5년간 83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욱 의원은 “전자여권을 비롯하여 상품권, 수표의 불량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조폐공사는 주요 생산품에 대한 품질제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표] 한국조폐공사 최근 5년간 주요제품의 손율 현황 (2018~2023년) (단위: %)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은행권 | 3.909 | 3.660 | 3.711 | 3.797 | 3.233 | 3.116 |
| 주화 | 0.164 | 0.246 | 0.247 | 0.255 | 0.283 | 0.283 |
| 수표 | 1.032 | 1.039 | 1.199 | 1.153 | 1.756 | 2.626 |
| 종전 전자여권 | 1.580 | 1.514 | 1.433 | | | |
| 현용 전자여권 | | | | 15.457 | 9.907 | 8.005 |
| 주민 ^(구) 등록증 | 3.121 | 3.043 | | | | |
| 주민 ^(신) 등록증 | | | 4.685 | 4.343 | 4.276 | 4.056 |
| 상품권 | 4.686 | 3.904 | 4.934 | 4.822 | 5.321 | 6.049 |